

2025/3 스리랑카 선교보고

1. 스리랑카 동역자 모임

스리랑카에서 3가정 6명의 선교사가 협력하여 선교하는 가운데, 지난 4개월간은 한 단기선교사가 함께 하여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함께 단합모임을 갖고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예배를, 1월 1일에는 신년성경통독모임을, 1월 7일에는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회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2. Theological College of Lanka 신입생 성경통독



감리교본부 과정고시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리랑카의 유일한 교육부 인가 신학교인 랑카신학교의 감리교신학생 4명과 선교사 5명이 힐링팜 로고스에서 성경통독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새벽 6시반부터 밤11시까지 식사 시간 3시간만 빼고 하루 13시간 반 씩 스리랑카어인 싱할라로 성경을 읽으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통독을 마쳤습니다. 시가서는 각자 집에서 이사야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6월에 통독하게 됩니다. 힐링팜로고스에선 1월과 2월 각각 빌립선교회 선교사들과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경통독 모임도 실시되었고, 3월에는 작년에 성경통독에 참여한 쿠마란 전도사가 목회하는 칸다와따교회 청년들이 2주간 성경통독을 진행합니다.



3. 이동병원 진료

수지침과 스포츠테이핑으로 의료사역을 하시는 박장현 장로님의 스리랑카 방문으로 2월 2일부터 9일까지 꼬박 8일간 이동병원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 3일부터 4일까지는 트린코말리지방의 날라벨리교회에서 5일과 6일은 와타알라 힐링팜 로고스와 햇튼여자보육원에서 그리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박종건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포이스톤 농장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날라벨리교회에서는 주민 200명에게 돋보기를 나누어 주었고, 각 사역지에서는 멀티비타민 영양제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동병원 사역도중 '치킨구니아'라는 땀기열 비슷한 열병에 걸려 1주일정도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4. 카달라나교회 예배

2020년 하늘중앙교회 (유영완감독)의 후원으로 카달라나 감리교회가 건축되어 봉헌 되었으나 당시 봉헌예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건축후원교회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금번에 하늘중앙교회에서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2월 23일 함께 감사의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양교회가 지속적으로 사역에 협력하기로 하고 인적교류와 비전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5. 마운트진 학교



지난 10월 마운트진 학교 교실 두 칸을 지어 봉헌한 후 지속적으로 학교와 연관을 갖고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월 13일에는 서울 광성고등학교에서 학생 등 11명이 방문하여 학교에서 찬양, 태권도 등 공연과 간식과 학용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2월 28일에는 광성고에서 준비해 준 스포츠 용품을 전달하였고, 한 간호사의 후원으로 드디어 우물과 물탱크, 개수대를 봉헌하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매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학생 중 두 명이 초등학교 졸업시험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장학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흥차농장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새빛시각장애인에배 및 활동



새빛시각공동체 사역이 매년 조금씩 안정과 성장을 이어오며, 작년에는 격주예배를 시작했고, 올 해에는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경제 위기 이후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특별히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각장애인 공동체 회원들을 위하여 3월부터는 매주 feeding 사역을 진행합니다. 2월 16일에는 서울 광성고등학교 학생들과 연합으로 캐롬대회와 팔씨름 대회를 열어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7. 일일 사모세미나

2월 20일 황경애 목사님을 모시고, 창천교회 감리교 선교센터에서 일일 사모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킹슬리감독님의 아내인 수미따 사모님이 사모위원회 총무를 맡은 후 첫번째 세미나였는데, 이후 양질의 사모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사모님들의 영성회복과 목회협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사모위원회 위원으로 사역하는 오경연 선교사에게 더 큰 지혜와 영적리더십을 주셔서 더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6년에는 사모위원회 주관으로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8. 현지인 선교사 마노지와 요한

제가 개척한 킬라포네교회에서 성장한 마노지 형제가 5년 전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천안지역 이주근로자를 돌보며, 올해 드디어 목원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3월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또 현재 CTS신학교에서 마지막 해 과정을 밟고 있는 빌립선교회 직원 요한씨는 작년 치앙마이 글로벌리더십컨퍼런스 참석 후 선교사가 되겠다는 헌신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선교훈련을 받고 있으며, 1-2년 안에 몰디브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 나디와 함께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데, 모든 준비과정과 파송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 칼엘리아 신학교 졸업식과 신입생

지난 몇년간 칼엘리아 신학교에서 수학했던 학생들이 지난 12월 6일 졸업했습니다. 학교 설립 목적대로 대부분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지역에 파송되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해 말 친불교성향의 사회주의 정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 의석수의 2/3를 차지하면서, 한 가정의 선교사가 추방을 당했고, 많은 선교사가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뿐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 특히 불교가 강한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협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를 잘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 햇튼여자보육원

현재 햇튼 여자보육원에는 16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5명의 아이들을 도청 어린이 복지과로부터 위탁 받았습니다. 대부분 힌두교인이며,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 보니, 3명은 성폭행으로 인해, 두 명은 가족의 폭력과 학대로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육원 생활을 통해 정신적인 평안과 안정을 찾고, 심리적으로 회복되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11. 가족 소식

장남 광현이는 대학원에서, 둘째 누가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막내 누빈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3월 15일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3월 17일 첫 장기 휴가를 나오는 막내 누빈에게 위로와 기쁨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선은 치과 치료와 흉부외과 진료에 집중하고, 연회와 5월초에 끝나는 감리교선교사대회 및 총회에 참석하고 5월 5일 스리랑카로 돌아옵니다. 선교보고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정은범/오경연 선교사 드림